

#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재사용'으로 기후위기 극복

### 광주일보·환경단체 유어스텝 공동 자원 순환 고민 '한걸음 집담회' 수리정보 공유·일상 기후운동 제시

자원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가게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대표 김지현)은 '고쳐 쓰는 마을, 다시 쓰는 삶-도시에서 재사용 문화의 회복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한걸음 집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담회는 국제 수리·수선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 재사용 문화 확산의 중요성과 도시에서 재사용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날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유혜민 수리상점곰손 대표,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이경희 친환경자연순환센터 센터장과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삶에 관심 있는 사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홍수열 연구소장은 '순환경제와 재사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홍 소장은 "쓰레기가 생겼다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생산, 소비의 과정에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인간의 물질주의 물질기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물질기를 돌리기 위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을 캐고 써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파괴의 경제에서 '순환'을 통해 우리의 시스템이 회복하는 회복의 경제로 가야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재활용 경제'에 머물러 있다.

홍 소장은 순환경제 과제로 물질 소비 총량의 증가가 억제되어야 하고, 재활용률 높이기와 업사이클링을 제시했다. 또 제품 재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리페어카페 등 수리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일보와 환경단체 유어스텝이 마련한 '한걸음 집담회'가 '고쳐 쓰는 마을, 다시 쓰는 삶-도시에서 재사용 문화의 회복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가게에서 열렸다.

유혜민 대표는 "기후위기를 건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 수리상점 곰손 이야기"를 주제로 곰손 시작 계기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려줬다. 리페어 카페 수리상점곰손은 환경에 관심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6명이 모여 웃, 그릇, 우산, 전자제품 등 물건을 수리하고, 여러 수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워크숍, 수리 모임을 진행한다. 유 대표는 매주 일요일 아이폰 자가수리 수업을 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해결하는 삶"을 지향하는 유 대표는 "물건을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물건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기술 너머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함께 수리해보는 가치가 있고 값진 경험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은 서로 돌보고 물들이며 색깔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은솔 활동가는 '고쳐 쓰는 마을의 힘 : 수리할 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수리'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는 수리권의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시민들의 수리권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해 '뭐든지 수리소'라는 이름으로 소형 전자기기 리페어 카페, 자전거 정비와 키보드 등 수리 워크숍을 열었다. 수리 워크숍을 진행하며 수리 실패 경험을 수집한 그는 수리권 확대 요구 기자회견, 수리할 권리 확대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 씨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하기, 충전 케이블 고치기 등 수리 매뉴얼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리 정보 공유를 위한 오픈 채팅방과 아카이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고 씨는 새 제품·리퍼 제품으로 전체 교체만 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상동 공유센터 리페어 카페를 사례로 들려주며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내권 수리·수선 공간을 안내하는 '고쳐보지도' 등을 제시했다.

이경희 센터장은 '동네를 바꾸는 자원순환 실험'을 들려줬다.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 공간인 친환경자연순환센터는 '시민이 시민에게', '소유에서 공유로', '마을에서, 현장으로', '순환도시 동구'를 목표로 친환경 삶과 자원순환을 고민하는

곳이다. 올해 개소한 동구라미 자원순환 가게 1호는 고물이 보물이 되는 포인트 보상 제도,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교환하기 등 지구를 아끼는 알뜰한 방법 등을 실천한다.

그는 청바지로 앞치마 만들기, 손수 목공 교실 등 수리수선실 강좌, 집 수리 교육을 소개하며 헌 옷을 마을에서 순환하기, 소형 가전을 고쳐서 공유하기, 재사용과 수리, 일상의 기후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다른 사람과 물건을 바꿔 사용하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재사용'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강연 이후 재사용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폭넓게 바라보다 수리할 권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절반 주1회 온라인쇼핑 월평균 27만원...여성·40대 주도

소비자 2명 중 1명은 매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하며, 월평균 27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CJENM의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소비·쇼핑 편'을 28일 발표했다. 메조미디어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만 1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가 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답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활발하게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7%, 남성은 39%가 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쇼핑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10명 중 6명이 주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쇼핑한다고 답했다. 30대는 49%, 20대는 38%가 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쇼핑 지출 금액은 27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이 30만원, 남성이 23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 29만원, 20대가 21만원이었다. 10대도 7만원이나 됐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쿠팡과 G마켓 등 오픈마켓(남성 65%·여성 64%)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로는 '쉬위가 빠른 배송, 2위가 저렴한 가격, 3위가 다양한 상품으로 꼽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마켓컬리와 무신사 등 전문몰, SSG닷컴과 롯데ON 등 종합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직구몰, 나이키와 자라 등 브랜드 공식몰, NS홈쇼핑과 홈쇼핑모아 등 홈쇼핑몰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생필품으로 특히 여성은 54%(남성은 39%)가 해당 분야에 응 답했다. 또한 패션 잡화(여성 46%·남성 38%), 신선식품(여성 30%·남성 25%) 등도 주 구매 품목에 속했다.

한편, 온라인 쇼핑 시 많은 소비자가 빠르게 간단하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페이(50%로 1위를 차지했고 카드·금융사 간편결제(49%), 카카오페이(39%), 카드 결제(37%), 삼성페이(29%), 토스페이(20%)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고장난 우산 직접 수리해요"

### 수리상점곰손 호우호우팀 '리페어 워크숍-우산 수리' 진행

우산을 고쳐보는 '리페어 워크숍-우산 수리'가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가게'에서 열렸다. (사진)

광주일보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이 함께 마련한 이번 '쓸모를 찾는 시간' 워크숍은 수리상점곰손 호우호우팀(유혜민·모호연)이 진행했다.

모호연 강사는 "국내에서 연간 판매되는 우산 소비량은 4000만 개로 폐기될 때 수만 톤의 유해 가스가 배출된다.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우산은 폐기가 어렵고, 1년에 애플답을 25개를 쌓을 수 있는 우산 살대가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1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우산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가져온 고장난 우산을 직접 수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안유진 씨는 "우산이 고장나면 버리는 게 익숙한데 내 손으로 고쳐보며 성취감과 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물건을 수리하며 애착이 생기고 자원 순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카카오페이 '큰 글씨 홈' 공개

카카오페이는 최근 고령 사용자들이 쉽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의 글자를 키운 '큰 글씨 홈'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 화면의 글자와 메뉴 구성이 낮은 시니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50세 이상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앱이나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홈(첫 화면)을 실행한 후 왼쪽 상단에서 '큰 글씨' 버튼을 누르면 된다. 50세 미만 사용자의 화면 최하단에도 '큰 글씨 켜기' 버튼이 따로 마련됐다.

큰 글씨 홈이 활성화되면 각종 거래내역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통합 내역' 버튼부터 '매장 결제', '내 계좌', '내 투자', '내 보험' 등이 큰 글씨의 설명과 함께 카드 형식으로 배치된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